



2013/05/07

은행업

|은행/카드| **황석규** 3771-9626
hwangsk@iprovest.com

STX 4개 계열사 워크아웃 신청 영향

- STX 계열사 자율협약 신청. 이들 기업들에 대해 상장은행 가운데에는 우리금융 익스포져가 가장 커 총당금 영향이 395~1,184억원 가량 있을 전망
- 수주산업 부실로 인한 총당금 영향으로 은행주 투자심리 악화. 그러나 이미 시중은행 PBR은 0.51배까지 하락했음.
- 2분기 대기업신용평가가 이슈가 있지만 STX와 같은 대기업 이슈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은행주 저점에서 상승여지 있음.

STX 계열사인 STX에너지, STX중공업, STX(주), 포스텍 등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4개 회사에 대한 익스포져는 우리 6,580억원, 신한 1,460억원, 하나(외환 포함) 560억원, DGB 230억원, 기업 100억원, BS 90억원, KB금융 40억원 등이다. 만일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면 총당금 추가적립이 요주의 기준으로 적립되어 6~18%의 추가 총당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395~1184억원), 신한(87~262억원), 하나(34~101억원), DGB(14~42억원), 기업(6~18억원), BS(5~16억원), KB(2~7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주산업의 실적부진이 실제 총당금 추가적립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지난주 주가급락에 일정부분 반영되었다. 추가적인 대기업 총당금 이벤트가 2분기에 대기업신용평가를 통해 발생할 여지 있지만 아직까지는 STX 이외 크게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없다. 비록 투자심리 악화된 상황이지만 이미 시중은행 평균 PBR은 0.51배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총당금 이슈가 없는 한 주가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금융 금융의 실적악화가 불가피하지만, PBR이 이미 0.43배까지 낮아졌고, 민영화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에 중장기 추천종목으로는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는 STX 익스포져가 적은 BS금융 KB금융, 기업은행 등이 은행주 내에서 매력적이다.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항목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_향후 6개월 기준, 2008.7.1일 Trading Buy 등급 추가
적극매수(Strong 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30% 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 이상 초과이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매도(Sell):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매수(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30% 이내
보유(Hold):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